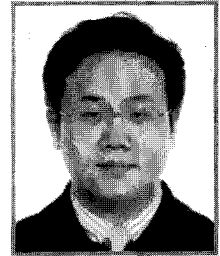


【특집: 결산 2009,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결산】

산란계 산업 결산



김희성 박사
(주)한국축산의회망서울사료
산란사업부 PM

▣ 산란계 - 업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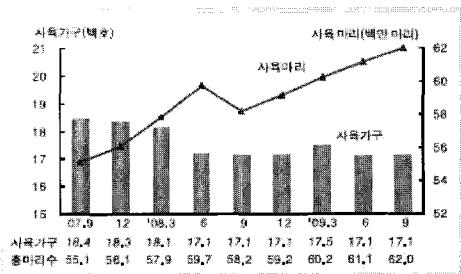
채란업계의 2009년은 연초에 미국발 금융 위기 여파인 환율불안에 의한 사료원가 상승과 함께 시작하였다. 이후 사육수수의 증가에 의한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인한 3중고로 이어졌으며, 연평균 특란 기준 130원을 밑도는 실거래가와 병아리, 중추가 강세 및 불안정한 사료가격에 의한 생산원가 증가로 수익구조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이외에도 EU FTA 타결 소식, 계란 품질관련 방송에 의한 소비감소와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다양한 악재들이 함께한 한해였던 것 같다.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9월까지의 산란계 총 사육수수는 6천2백만수에 이르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산란용 닭마리수(6개월령 이상)도 9.9% 증가한 4,707만수 였다. 이는 추석 이전까지 난가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신규 입식 병아리수가 노계 도태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산란종계 입식 자료로 추정할 때 내

년 3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6.6%가 높고, 내년 2월 계란 생산에 새로 진입하는 계군(2009년 9월 3개월 미만 마리수)은 795만 마리로 전년보다 5.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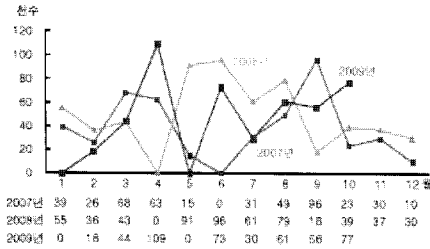
산란계 사육 마리수와 사육 가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이는 12월~내년 2월 도태의향 지수의 -3.2% 감소와 신규 병아리 입식 증가와 함께 내년 3월 산란계 사육수수를 전년 대비 6.5% 증가한 6,415만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노계도태 지연 및 강제환우 증가와 함께 적정사육수수를 위한 적극적인 수급조절 동참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과잉생산에 따른 난가 할인폭(D/C)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산란 종계 입식 동향



자료: 대한양계협회

【표본농가 도태의향 지수】

구분	9~11월	12~2010년 2월
2009년(A)	97.9	101.3
2008년(B)	100.0	104.6
증감율(A/B)	-2.1%	-3.2%

주: 농가 도태의향지수는 08년 9~11월을 100으로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산란계 월령별 마리수】

단위: 만마리

	08.9(A)	09.9(B)	B/A, %
3개월 미만	756	795	5.2
3~6개월 미만	781	698	-10.6

자료: 통계청

【산란계 사육 마리수 전망】

단위: 만마리, %

구분	9월	12월	10.3월	12월/9월	3월/12월
2009년(A)	6,200	6,230	6,415	0.5	3.0
2008년(B)	5,820	5,917	6,024	1.7	1.8
증감율(A/B)	6.5	5.3	6.5	-	-

자료: 통계청

(09년 12월, 10년 3월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계란 생산량도 12월~내년 2월 산란용 마리수의 5.7% 증가 예상에 따라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구매량은 2009년 1~9월 가정내 계란 월 평균으로 2008년보다 6.2% 증가한 38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계란 가격이 타 축산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TNS World).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 상황을 살펴보면 세일기간의 매출 저하, 5~6월의 질병발생 증가, 추석이후 재고량 증가, 계란 품질관련 방송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과 식자재 소비 감소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계란 체화 상황의 불안정은 지속되어 왔다. 계란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 없이는 계란 품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위생란 및 시설기준 수립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유통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 산란계 - 사료산업 결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료업계에 있어서 2009년 초반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국제 곡물 수료 감소 및 구매 급감의 전망으로 사료 가격인하가 예상되었으나 환율 급등이라는 변수에 의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한 2008년말 발표에 의하면, 2009년은 세계경기침체와 유가하락

의 영향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은 톤당 185~189달러, 대두를 포함하는 유지작물 가격(가중평균)은 423달러, 밀가격은 206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2010년에 경제 회복세에 따라서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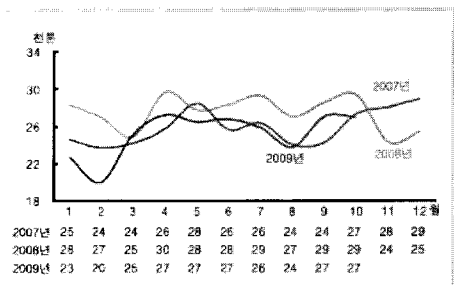
실제로 2009년의 시장상황을 비교해 보면 옥수수에 있어서는 소폭 증가 유지 후 연말 상승전환, 대두 포함 유지작물은 급등 후 불안정한 조정 국면, 소맥은 유사한 수준으로 년 중 보합 유지 후 상승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10년의 대략적인 원료가격 전망은 곡물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반기에 소폭 하락 후, 보합세를 거쳐 하반기에 재상승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2009년 산란계 사료의 가격은, 주요 곡물 단가의 변화와 함께 환율 변이폭에 따라 연동하여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년 중 3회 정도의 가격 인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산란농가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며, 생산원가가 년 중 난가 기준 대비 높게 유지되는데 일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산란계 배합사료의 2009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병아리용 배합사료의 생산동향은 1~10월 집계시 25만 2천톤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하였고, 산란용 배합사료의 생산동향은 1~10월 누계 집계시 160만 2천톤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산란계 사육수수의 300만수 이상 증가 경향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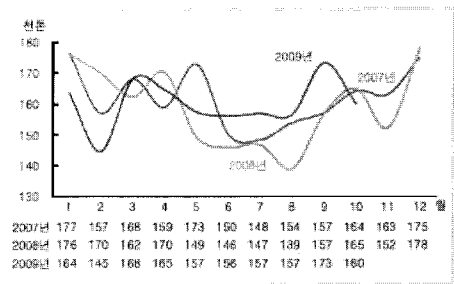
산란계 관련 배합사료 생산량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란중계 사료에 있어서 2009년 10월 집계에서 3,321톤으로 동기간 전년(2,352톤)대비 41.3% 증가되었고, 10월 누계 비교에서도 34,852톤으로서 7.0% 증가되어, 내년 3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의 6.6% 증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 동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 동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산란계 배합사료량을 사육단계별로 구분하여 집계해 보면, 2009년 10월 집계치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육추사료는 8.2%, 산란사료는 2.8%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월대비로 보면 중추사료 부분은 증가되는 경향이며, 산란전기사료는 난가 하락시점과 함께 증가한 환우계군의

【산란계 사료 생산량 통계 : 2008. 10 ~ 2009. 10】

(단위: 톤)

구 분	초생추	중 추	대 추	산란전기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계	산란중계
2009. 10	5,574	18,354	3,079	5,028	139,554	13,803	1,925	187,317	3,321
전월대비	80.8%	108.2%	95.7%	113.5%	92.0%	96.8%	65.7%	93.5%	88.7%
전년동기대비	82.1%	94.3%	97.8%	91.4%	97.1%	106.1%	72.4%	96.4%	141.3%
2009. 9	6,897	16,968	3,218	4,430	151,717	14,256	2,929	200,415	3,743
2009. 8	6,066	15,044	2,685	4,411	137,486	12,297	2,435	180,424	3,564
2009. 7	6,314	16,206	3,357	5,751	137,239	12,084	1,861	182,812	4,093
2009. 6	5,852	17,500	3,467	4,584	135,122	14,499	1,972	182,996	4,005
2009. 5	5,999	17,261	3,262	3,529	136,739	15,065	2,165	184,020	3,778
2009. 4	6,872	17,452	2,929	3,897	143,063	15,533	2,088	191,834	3,643
2009. 3	6,713	15,927	2,496	4,710	146,616	15,394	1,377	193,233	4,270
2009. 2	5,582	12,341	2,092	4,436	125,133	13,154	1,827	164,565	1,973
2009. 1	5,513	14,969	2,205	4,377	143,906	13,652	2,016	186,638	2,462
2008.12	5,774	16,864	2,811	5,657	155,954	14,175	2,338	203,573	2,687
2008.11	5,119	16,564	2,660	5,703	131,874	12,111	2,543	176,574	2,327
2008.10	6,790	19,467	3,147	5,504	143,724	13,015	2,660	194,307	2,35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란참여 개시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월 대비 생산량 변화 집계에서 중추 8.2%, 산란전 13.5% 로 증가되어 향후 2009년 12월, 2010년 초 산란에 참여할 계군의 증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009년 산란계 사료업 전반을 정리해 보면, 2008년 12월 대비 총 산란사육수수의 300만수 증가를 반영하여, 산란중계 사료 7.0% 이상 증가를 비롯하여, 산란사료의 30% 이상 증가 상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0년 3월경에 사육수수의 100만수 이상 추가 증가 전망에 따라 지속적인 사료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사육수수의 급증에 따라 예상되는 난가 하락 및 유통 구조 악화에 따

른 생산원가의 동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란계 농가의 기반이 급격히 취약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 산업 분야의 현 시점에서 전망되는 2010년의 원료곡물가 하락 전망과 수급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적정 사육수수 유지를 위한 업계 전반의 논의와 조절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계도태 지연 및 강제환우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고, 우수한 병아리와 사료 품질 유지와 적극적인 환경개선, 질병 예방 및 방제를 통해, 산란성과 생산성(수익성)은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업계 전반의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